

06년 상반기 세계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결산

차이나모바일 · 차이나유니콤 · 싱쿨러 · 버라이즌 · 도코모 · 스프린트 '성장일로'

미국 3G아메리카 및 영국 인포마텔레콤&미디어가 세계 이동전화 사용자를 조사한 결과, 6월 현재 GSM방식(GSM · GPRS · EDGE · UMTS/HSDPA 포함) 이동전화 사용자가 20억명을 돌파했다. 세계 이동전화 가입자가 24억명 정도이니, GSM방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GSM방식 휴대폰 사용자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 · 러시아 · 인도 · 미국 등의 순서이다.

글 | 김종을 기자(모바일타임스)



누적 가입자와 무관하게 성장률은 중남미와 카리브해 연안 국가에서 높았다. 이 지역에서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성장률은 97%로, GSM방식 이동전화 사용자가 7400만명 이상 증가했다. 다음으로 중동(성장률 67.7%)과 아프리카(61.1%)에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다.

인포마 텔레콤측은 2004년 GSM방식 사용자가 10억명을 돌파했을 때까지 12년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불과 2년 6개월만에 다시 10억명이 증가했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GSM방식 이동전화 사용자는 2010년 30억명에 달하며, 그 중 7억명이 WCDMA 사용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저기서 '억대' 이동전화 가입자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 성장에 따라 세계적으로 '억'대 이동전화 가입자를 보유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물론 개별 사업자가 아닌 '그룹' 가입자를 모두 합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가입자 증가는 세계 이동전화 서비스 시장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서비스 사업자 IR자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까지 '억대' 가입자를 보유한 서비스 사업자는 차이나모바일 · 보다폰 · 차이나유니콤 등 3개 정도였다. 그러나 올 상반기를 기해 아메리카모빌, 텔레포니카가 '억대' 가입자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에 이어 조만간 T-모바일 그룹도 합류 예정 위치에 있다.

차이나모바일은 세계 최대 서비스 사업자로 올 6월 기준 2억7300만명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올 상반기 순증만도 2700만명이나 된다. 이 추세라면 하반기 3억명 가입자 돌파를 기대할 수도 있다.

글로벌 사업자의 상징인 보다폰은 가입자 1억 8000만명을 자랑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진출 지역도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 영국 · 포르투갈 등 유럽은 물론 호주 · 이집트 등 지역을 가리지 않을 만큼 다양하다.

많은 지역에 진출해 있지만 핵심 거점은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 영국이다. 독일에서 2944만명, 이탈리아에서 1855만명, 스페인에서 1394만명, 영국에서 1618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본 서비스 시장을 포기하는 등 세계진출 실패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차이나모바일과 더불어 중국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차이나유니콤은 상반기 기준 누적 가입자 1억3500만명에 달한다. 상반기 순증은



700만명 수준. GSM방식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CDMA방식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재 GSM방식 가입자 1억명, CDMA가입자 3500만명 수준이다.

멕시코·아르헨티나·브라질·콜롬비아·에콰도르 등 주로 중남미 시장에서 활동하는 아메리카 모빌은 올 상반기에 1300만명의 순증을 기록해 누적 1억780만명을 달성했다. 첫 1억명 가입자 대열에 합류한 것. 아메리카 모빌이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멕시코·브라질·콜롬비아·미국 등이다.

멕시코의 텔셀은 가입자가 3915만명으로 아메리카 모빌 사업자 중 최고이다. 상반기 순증도 300만명에 달했다. 이어 브라질의 텔레콤 아메리카 모빌이 2094만명의 가입자로 아메리카 모빌 그룹 중 2위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콜롬비아의 컴셀도 1797만명이나 되는 적지 않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의 트랙폰과 아르헨티나의 CTT 등은 각각 800만명과 7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한 상태. 컴셀의 경우 상반기에 400만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남미의 강세를 단적으로 대변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텔레포니카는 스페인에 적을 두고 있지만 현재 중남미 국가에 진출해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스페인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칠레·에콰도르·과테말라·페루·브라질 등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다. 누적 가입자는 올 1분기 기준으로 1억명을 돌파한 1억100만명이다. 남미 시장 가입자 확대에 따라 상반기만 1000만명 정도의 신규 가입자를 확보했다.

텔레포니카는 작년 하반기 영국을 대표하는 mmO2를 합병한 상태. mmO2 가입자 2800만명을 합하면 누적 1억3000만명이나 된다. mmO2는 영국을 대표하는 사업자로 영국·아일랜드·독일·네덜란드 등이다.

세계 이동전화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단위: 천명)

사업자	05년 12월	06년 6월
차이나모바일	246,652	273,786
보다폰	179,316	186,806
차이나유니콤	127,940	135,086
아메리카모빌	93,330	107,828
텔레포니카	89,091	101,018
T-모바일	86,600	90,166

차이나 모바일, 누계 가입자 '2.74억명'

올 상반기 차이나 모바일의 신규 가입자 수는 2577만 5000명으로 월 평균 429만명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지난 6월 30일 현재 차이나 모바일의 누계 가입자 수는 약 2억 7400명으로 집계됐다.

차이나 모바일의 중기 업적 발표에 따르면 매출 수익은 1369억 7900만 위안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6%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차이나 모바일의 강세와 브랜드 가치 확대는 중국 민족기업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차이나 모바일은 얼마전 보다폰을 제치고 주가(시세 총액) 1위를 기록했고, 포춘지의 500대 기업 리스트 및 영국 FT가 평가한 100대 유명 브랜드 4위를 기록하면서 민족기업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있다는 평. 특히 2006년 상반기 차이나 모바일의 실적은 저수익에 헤매이는 중국의 가전·PC·전자 업체들에 비해 더욱 돋보인다. 아직도 매년 20%에 육박하는 성장률과 22%의 고수익률은 차이나 모바일의 강세와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경쟁이 치열한 통신산업에서 이러한 높은 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차이나 모바일은 아직 탁월한 경영과 첨단 기술, 첨단인력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차이나 모바일이 아직 전세계적인 탁월한 경영으로 자리매김 한 글로벌 기업으로 부르

는 데는 미흡하다는 것.

이는 차이나 모바일의 최근 호황이 전세계 제일 큰 시장(13억 인구)을 토대로 신규시장에서 중국 통신산업의 독점적 환경의 이득을 보기 때문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차이나 모바일은 이러한 막대한 수익을 타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이나 시설 교체, 시장 운영 등에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투자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

이외 차이나 모바일이 자사 직원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가 높다. 수익의 많은 부분을 내부 직원들에게 임금 외 보상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그것이다.

현재 차이나 모바일은 높은 이윤에 만족하면서도 동시에 3G 도입에 따른 중국 통신업의 구조 조정, 새로운 통신환경 가운데 사라지게 될 독점적 우위의 상실, 국내 통신업 시장의 개방에 따른 해외 유명 통신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등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다 저렴한 가격 정책, 다양한 양질의 서비스로 사용자들의 '인심'을 사야 하며, 동시에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재교육과 전체 회사의 내실을 튼튼히 다져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게 오늘날 차이나 모바일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사업자별 가입자 현황

그룹이 아닌 개별 서비스 사업자들은 어느 정도 가입자를 보유해야 세계 탑 클래스 서비스 사업자로 명함을 내밀 수 있을 것인가? 평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0만명을 일단 기준으로 잡을 수 있다.

이 정도 가입자라면 6위권에 진입할 수 있다.

세계 서비스 사업자 중 가입자를 가장 많이 보유한 업체는 역시 중국의 양대산맥인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이다. 차이나 모바일은 가입자 2억 7300만명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어 차

이나유니콤이 1억 3500만명이다. 이 두 사업자는 '억' 대 가입자를 보유한, 단 둘 뿐인 권위를 인정 받고 있다.

06년 상반기 순증도 차이나모바일이 2700만 명, 차이나유니콤이 700만명을 기록했다. 차이나유니콤의 순증도 놀랍지만 차이나모바일의 2700만명 순증은 경악 그 자체이다. '중국' 시대를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차이나모바일의 순증 위력은 막강하다. 차이나유니콤의 700만명 순증이 오히려 초라해보일 지경이다.

'억' 대 가입자 확보에는 진입하지 못했지만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 대열에는 싱굴러와 버라이즌·NTT도코모·스프린트가 있다. 상반기 누적으로 싱굴러가 5700만명, 버라이즌이 5400만명, 도코모가 5100만명, 스프린트-넥스텔이 5000만명이다.

작년 하반기까지 4700만명 가입자였던 스프린트-넥스텔은 상반기에 240만명의 순증을 획득하는 것으로 5000만명 가입자 대열에 합류했다.

상반기 순증은 싱굴러가 320만명, 버라이즌이 350만명, 도코모가 130만명, 스프린트가 240만명이었다.

2004년 AT&T와이어리스 인수 후 미국내 1위 사업자로 등극한 싱굴러는 상반기에도 탄력을 받아 320만명 순증을 기록했지만, 상반기 순증 350만명을 기록한 버라이즌의 추격도 만만치 않다. 양사 누적 가입자 격차는 250만명. 이 누적 가입자가 그리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한 순간에 역전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달해 작년의 순증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양사 역전은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버라이즌이 지역 사업자를 인수하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역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되는 것.

5000만명 진입을 기약할 수 있는 사업자로써 러시아·인도·브라질·멕시코 등에 포진된 사업



자를 우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의 양대 사업자인 빔펠콤과 MTS는 4800만명 가입자로 하반기 5000만명대로의 진입을 예약한 상태. 양사 공히 상반기에만 250만명 정도 순증을 기록했으므로 하반기에도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 이 두 사업자가 5000만명대에 진입한다면 세계적으로 5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보유한 사업자는 8개로 늘어난다.

러시아 외 가장 유력한 5000만명대 진입 사업자로써는 인도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자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의 1위 사업자는 현재 가입자 2600만명 수준. 당분간 5000만명대 진입은 바라볼 수 없다.

인도에 이어 멕시코나 브라질 등 신흥 시장 국가를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 1위 사업자도 아직은 거리가 멀다. 1위 사업자의 가입자가 2000만~3000만명 정도이기 때문. 물론 인수 합병을 통해 달성될 가능성은 배제될 수 없지만, **☒**